

박근혜 검찰 조사... 뚫느냐? 막느냐?

검찰 출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장' 검찰, 한웅재 우선 투입·이원석 두번째 조사 '방패' 변호인단, 박 측근으로 꾸려져... 중량감 낮아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협력이 21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의 '장'이 변호인단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노승권(52·사법연수원 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10분간 짧은 티타임을 가진 뒤 오전 9시35분경부터 1001호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선봉은 한웅재(47·28기) 형사8부 부장검사가 맡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대검찰청 형사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 부장검사는 '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수사를 진행해 와 이 사건 전 반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배석검사 1명, 참여수사관 1명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케이포츠 재단 설립 경위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 두번째 주자는 이원석(48·27기) 특수1부 부장검사다. 그는 검찰 내 현직 특수부 검사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특수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과 수

사지원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능력을 인정 받았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05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에도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후 김수현(58·17기) 부장판사 및 홍민표(57), 최유정(47)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직전까지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질문을 검토하고 조사실을 살피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박 전 대통령 소환이 이뤄진 만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참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로 방패로 구축했다. 사건 초기부터 박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킨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먼저 검찰의 참에 맞서고 있다. 검사 출신 유 변호사는 '진박' 정치인으로 분류되며 박 전 대통령과는 상당한 친분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도 가장 모습을 많이 드러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청주지검·인천지검·서울지검 북부지검 검사,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다만 지난 2003년 두 차례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웃을 벗은 전력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이자 부부장검사 출신 정장현(59·16기) 변호사도 유 변호사와 함께 조사 과정에 참여 중이다. 두 검찰 출신 변호사가 먼저 조사에 입회한 것은 검찰 수사에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변호인단 중에는 손범규(51·28기) 변호사가 언론 등에 적극 대응하며 변호인단 중 두드러지게 참모 역할을 하고 있다. 손 변호사 또한 탄핵심판 대리인단 중 한 명으로 사실관계 대부분을 파악해 어떤 혐의에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사가 없는 것이 약점으로 평가된다. 검찰의 예리한 참을 앞장서서 막아낼 무게감이 없다는 것이다. 애초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이같은 점을 우려해 대검 중수부장 등을 역임하고 탁월한 수사 역량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은 최재경(55·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영입하려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안재용 기자

'차 영상녹화 포기' 실리 택한 검찰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영상 녹화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대면 조사 협상 결렬 요소로 작용한 바 있다. 21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 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동의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진행될 경우 질문에 모르쇠 일관 가능성'

조사 대상이 피의자 신분일 경우 영상 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영상 녹화가 가능하지만, 검찰이 영상 녹화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영상 녹화가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전북대, 여성 공학도 전용 실험실 개소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여성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공대에 여학생 전용 실험실실험실을 개소했다. 공대 1호관에 'WE-FACTORY'로 문을 연 여학생 전용 실험·실습실은 실험·실습실 1실과 토론실 1실, 세미나실 1실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현장 업무 능력을 갖춘 차세대 여성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여 공학도를 위한 최초의 실습·실습 공간답게 통 유리로 구성된 시원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아기가기한 소품 등이 눈에 띈다. /정해은 기자

쌀 우선지급금 환수... 실적 저조

농민회 "정부 양곡정책 실패 농민에 책임 전가는 안돼"

쌀값 폭락으로 발생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가 농민들의 반발로 변동지불금 지급 이후에도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가 변동지불금 지급 이후 해당 농가들이 환수에 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농민들은 정작 풀수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전북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지서 발송 이후 지난 16일까지 정상적으로 환급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전국적으로 총 197억원 중 39억4,900만원(약 20%)에 불과했다. 전북도의 경우 4만5,000여 농가에서 총 27억8,600만원의 쌀 우선지급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2억2,200만원

(8.0%) 가량이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쌀 농가에서 사들일 때 현장에서 미리 지급하는 돈인데, 나중에 정산 절차를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쌀 변동지불금 지급 이후에 우선지급금 환수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동의한 농가에 한해 지난 9일 지급된 변동지불금 중 환수해야 할 우선지급금만큼 자동이체 계좌를 통해 환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자동이체 계좌를 통해 환수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60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조치에 대해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농민회 관계자들은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게 된 이유가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 따른 쌀값하락이 원인이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농민회는 "변동지불금과 우선지급금은 별개의 것인데 이를 연동하려는 것은 폄수에 불과하다"며 "일부 농민들은 우선지급금과 변동지불금이 연계돼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원칙적으로는 쌀 농가가 과다 지급받은 우선지급금을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며 "일반 농민들을 중심으로 우선지급금이 환수되고 있는 만큼 농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정음 벚꽃축제

2017.4.7(금) ~ 4.12(수) 6일간
정음천변어린이축구장 및 벚꽃로 일원

개막식 및 축하공연 4.7(금) 18:30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4.7(금) ~ 4.9(일)
벚꽃 버스킹, 버블쇼, 키다리 뽀에로 풍선마임, 석고마임
캐릭터 인형탈, 이벤트 존, 봄노래 존, 로맨틱 포토존

벚꽃 야간 경관 조명 4.1(토) ~ 4.16(일)
제56회 전라예술제 4.8(토) ~ 4.12(수)
제13회 자생화전시회·제6회 자생차 페스티벌 4.7(금) ~ 4.12(수)
체험, 간식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4.7(금) ~ 4.12(수)

차량통제안내 : 4.7(금) 22:00 ~ 4.9(일) 22:00
-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정주교 ~ 정동교(1.2km)

초대가수공연

송대관	김용민
마틸다 MATILDA	불독

정주/조연비/오대성/양재동

주최·주관 | 정음시
문의처 | 정음시청 관광개발과 539-5203